



5면

옛 금암고 일원 도시재생사업 본격화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음 11월 18일) 제3648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자치도 RISE 기본계획 확정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4개 프로젝트·12개 과제
라이즈위원회서 심의·의결
도, 24일까지 교육부 제출

전북자치도가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7일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 라이즈위원회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 RISE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4개 프로젝트와 12개 단위 과제가 최종 확정됐다. 도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24일까지 교육부에 기본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를 가진 전북 라이즈위원회는 전북자치도의 RISE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위원회는 도지사를 포함해 시·군, 도교육청, 대학, 혁신기관, 산업계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운영에 따라 호선된 공동위원장은 도지사와 함께 지역대학 총장 중 1명이 선출됐다.

전북자치도 RISE 기본계획은 '함께 성장! 함께 성공! 모두가 행복한 전북'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지역혁신의 시작점으로서 대학의 역할을 강화(Brand Up)하고,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기술과 인재를 매칭시킴으로써 지역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Grow Up)하며, 대학과 산업의 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문화·생활수준 향상을 통한 지역 가치를 증대(Value Up)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과 행복한 공동체를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 라이즈위원회에 김관영 도지사와 양오봉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학지원 시스템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요 프로젝트는 △생명·전환산업 혁신(JB-Spark) △지역 주력산업 성장(JB-Root) △평생교육 가치확산(JB-Everlearn) △동행협력 지역발전(JB-Team) 등 4개 프로젝트가 확정됐다.

이를 통해 대학과 산업계 간 인재육성·연구개발 정책을 연계하는 지·산·학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문제 해결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매년 1,000억원 규모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될 예정인 RISE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대학과 산업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마련됐다. 그간 15회 이상의 공식 공청회와 설명회를 거쳐 정책의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전북자치

도는 2025년 라이즈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인 '시행계획'도 조기에 마무리지를 방침이다.

시행계획은 지역대학이 라이즈에 참여하기 위한 공모 계획이다. 공모제안서(RFP), 단위과제별 예산규모 등을 조속히 확정된 후 라이즈에 포함되는 지역혁신사업(RIS), 산학연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LINC, 링크),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LIFE),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 등을 2월 말 확정 후, 3월부터 사업을 공고한 뒤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라이즈 전담 조직인 전북테크노파크 JB지산학협력단은 기존 지역혁신 사업 중심 조직을 RISE에 맞게 개편한다. 현재 1국 1본부 4부 체제를 2본부 5부 체제로 개편하고 RISE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의 라이즈 기본

계획을 24일까지 접수받고 라이즈 기본계획 우수 시도에는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특별자치도 박현규 특별자치협력국장은 "향후 있을 교육부 라이즈 기본계획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라이즈 계획의 추진 동력으로서의 추가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스웨덴 말뚝시가 말뚝대학을 통한 인재양성을 통해 제조업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인구 34만 명의 절반이 35살 이하인 대학중심 최고의 스타트업 도시로 성공했다"며 "내년부터 본격 시작하는 라이즈를 통해 인재양성, 기업유치, 취창업, 지역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역발전을 앞당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세계적 혁신 거점 구축 모색

'2024 세계 바이오 혁신포럼', 오늘부터 이틀간 전북대서
김관영 도지사, 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계획 로드맵 제시
메사추세츠·하버드 의대 등 세계 대학·연구기관 참여

'2024 세계 바이오 혁신포럼'이 18~19일 이틀간 전북대학교에서 열린다.



Zawistowski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의약품과 기능성 식품에 대한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간다. 글로벌 기업 Clinical Treats의 대표와 전문가 패널들이 참여해 토론을 통해 관련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19일에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 기술과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진단 및 치료법에 대한 심층 발표가 이어지며, 의약품 및 기능성 식품에 관한 논의도 계속된다. 이 세션에서는 하버드 의대, 예일대, 메사추세츠 대학 등 해외의 우수 대학과 연구소, KAIST, 기초과학연구원(IBS), 성균관대 등 국내 연구진이 참여해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채수찬 WBIF 대표는 "세계 바이오 혁신포럼은 2021년부터 전주를 중심으로 진행, 첨단 바이오 기술 혁신을 논의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며 "이번 포럼은 한국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이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연관 기업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의 사자성어로 '초지일관(初志一貫)'을 선정했다. '초지일관'의 사전적 의미는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도전경성(挑戰竟成 : 2023년 사자성어)의 초심을 계속 이어 나가며,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을 지속 추진해 도민과의 약속을 실현해 나가겠다' 뜻에서

전북자치도, 내년 도정 사자성어 '초지일관' 선정

〈初志一貫〉

도민 체감 성과 창출과 함께 균형발전 이룰 기반 조성 박차

김관영 지사 "초심 잃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을 의미"

'초지일관'을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새

로운 시작과 원대한 계획을 세운 해라면, 2025년은 도전과 혁신의 초심을 잃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는 다짐의 해인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출범 1주년과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2025년을 기점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초지일관의 자세는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각오 그대로, 함께 혁신, 함께 성공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내년에도 2036년 올림픽 유치 등 전북자치도의 미래를 위한 도전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해에도 계속 도전해 기업하

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이차전지, 바이오, 방위산업 등 미래 첨단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전북특별법 특례를 적극 활용해 전북자치도의 도약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자름길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